

## "호지킨"씨병 투병기



Mary Patricia Showfety

이 향 련 譯

<경희의대간호학과조교수>

"호지킨"씨병과 같은 질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  
한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의 경우는 1975년  
12월 중환자실(ICU)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인, 크  
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날 오후였다. 갑자기 목  
이 아프고 열이 나는걸 느낀 나는 목을 문지르다  
가이 상하게 목의 임파선이 부은 것을 알았다. 그  
래서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나에게 여러가  
지로 안심이 되는 얘기를 해 주었지만 한사람만  
이 내가 그녀를 때리거나 한것처럼 나를 쳐다보  
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임파선  
암으로 사망했었다.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이  
제 내가 원하는 것은 "Hodgkin's disease"야"라  
고 말했을 때 모두들 웃었었다. 그러나 나는 걱  
정이 되어 의사에게 얘기를 했을때 그는 임파선  
이 커지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으며,  
나의 경우에는 두피의 자극이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로 몰수 있는 경증의 반응일 것이라  
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실검사나 "X-ray"상에는  
약간의 빈혈만 나타났었다.

나는 임파선을 검사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역  
시 두피자극으로 인한 생리반응으로 생각하며 특  
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했고, 혹은 단핵세

- ▷ 「역자주; 필자인 Ms. Showfety는 North Carolina에 있
- ▷ 는 Moses H.Cone 병원의 중환자실(ICU)에 근무하고 있
- ▷ 는 간호원으로 본인 스스로가 "Hodgkin's disease"를 극
- ▷ 복한후 그 투병기를 "American Journal of Nursing"지
- ▷ 1974년 11월호에 게재하였다.
- ▷ 역자는 이 글이 암에 걸린 환자의 일반적인 심리극 이해하
- ▷ 는데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이 질병과 간호를 이해하는데
- ▷ 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사료되어 소개하려 한다. 필자의
- ▷ 원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못 전달되지 않
- ▷ 을까 염려된다.

포증가증의 말기증상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었  
다. 나는 때때로 피곤 걸 느꼈으나 심한상태는  
아니었었다.

나의 피로감과 목의 불편감은 점점 더해갔고  
체온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상승이 되어 걱정이  
더해갔다. 그래서 나는 의사를 만나, 체온이 100  
도이며 현재 몸상태가 아주 좋지않고 딸이 계속  
많이 흐르니 치료를 받지 않고는 더이상 이런 상  
태로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  
했다. 그래서 그날밤 조직검사(biopsy)를 하기  
위해 입원했었다. 검사한지 3일만에 그 임파선  
의 비대는 양성이라고 말해졌다.

다음달에도 나는 아픈 상태이지만 계속 일을 하  
며 나 스스로에게 참을성을 갖자라고 말했다.

그런동안에 일을 하던 중 왼쪽 액와부가 이상하게 불편하면서 다른 입파선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압통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복된 혈액검사와 “X-ray”검사도 모두 확실하지 않고 애매하기만 했다.

나는 의사가 나를 히스테리칼한 간호원으로 간주하고 단순히 보호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호원이며 환자인 내가 지나치게 불안에 떨고 있으며, 나 자신이 내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결국 그들은 다른 입파선을 조직검사한 결과 액와선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으며, 병리검사 결과보고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암에 대한 나의 걱정은 점점 더해갔다. 그전후 결정적으로 나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주치의가 내 방에 조용히 들어왔을 때였다. 그는 내 앞의 라디오를 끄고는 침상옆에 앉아서 조용히 검사에서 “호지킨”을 발견했으라고 말했다. 그 진단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외의 몇 의사들도 다시 검사를 하여 확인하였다. 그는 입파선 종양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왜 처음에 발견 못했는지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아무말도 묻지 않았다.

나는 마루바닥을 응시하면서 의사가 하던 말을 생각했다. “당신은 가장 좋은(양성인)종류의 “호지킨”을 가졌고 이 질병은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를 잘해 주겠오”라고 말했었으며 단계적으로 2년동안에 해야 할 치료과정에 대해 대강 얘기해 주었었다. 그 과정은 처음에는 여러가지 검사들 하게 될 것이며 다음에는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Cobalt”요법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약물요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기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탈모, 근육쇠약증, 구토증, 방사선에 의한 질염, 화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 몸 전신이 마비되는 듯 했으며 의사가 언제 내방을 나갔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후 아무도 내방을 찾아오지 않은 몇 시간 동안 무서운 고통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등

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오직 나는 27세이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이 나에게 크게 부각되어 있었다.

그후부터 나는 신을 저주했고 약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악령에 의해 내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맛보았다. 나는 치료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호지킨”이라는 암은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모든걸 이해하고 받아 들이고 힘을 기르려고 무척 노력했고 좌절되려는 나의 마음과 자주 싸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극심한 공포감에 빠졌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심했다. 나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매사에 의욕을 잃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다. 외관상으로는만 평화스런 마음인 것처럼 했고 부모나 친구에게도 그렇게 보일려고 애썼다. 나는 사람들이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했고 의학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감과, 용기를 가질려고 힘썼고 간호원과 환자 이상의 관계를 가질려고 했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나는 매일 매일을 그런 상태속에서 마지못해 살고 있었다. 가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타고 생각될 때는 먹어했으며, 신을 이해하도록 나를 도울려는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내 건강회복을 위해 병문안 해준 것에 감사했지만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검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입파관 조영술(lymphangiogram)을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X-ray를 찍었으며 골수검사, 골조직검사(bone biopsy) 간장과 비장의 scans, 그리고 수많은 혈액검사를 한 결과 나는 stage II B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으로 비장절제술을 했는데, 중환자실(ICU)에 있는 동안 Levin tube, 배농관, 정맥매노관, 혈관주사, 수혈등을 했고 식도에는 경련이 오고 동통이 왔으며 시끄럽고 혼돈된 정신없는 상태에 있었다. 간호원은 계속해서 나를 물려놓고 기침을 하게 했으나 나는 잘 응하지 않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ICU를 떠날 때도 계속해서 구토증은 있었으며, 항 구토제로서도 진정되지 않았고, Levin tube와 혈관주사 항생제 투여는 계속되었다.

나는 기운이 없었고 소화성계양이 생기지 않았을까 의심했으나 “X-ray”상에는 이상이 없었다. 나는 tube로 지켜있어서, 음식물 투여를 위한 tube도 넣었지만 즉시 빼버렸다. 그리고 항생제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트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심리적으로 나의 용기를 북돋으려고 애쓰는 간호원에게서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친구나 가족들도 나에게 열려를 표시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내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울증이 나를 억눌렀으며, 아무도 나의 세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고 필요할 때만 말을 했다. 의사는 나의 병이 치료될 수 있고 치료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번 위로했으나, 그들은 전에 진단을 잘못 내렸으며 나는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차라리 빨리 죽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서서히 흘렀고 나는 약을 먹고 잠에 빠져 모든걸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으며 내 스스로를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이런 상태에서 헤어나려고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려 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간호원이 회진시에 나를 만지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정신과의사를 불러 줬더까?”라고 물었을 때도 의아했으며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정신과 의사를 부른다는 말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화도 났고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었다. 처음으로 나는 질병을 이겨 보려고 했으나 다시 좌절감에 사로잡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후 정신과 의사는 오지도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제 “Cobalt”요법이 시작되었다. —하악골에서부터 허리선까지 앞과 뒤를 6주동안 조사(Irradiation)받았다. —

나는 무서울 정도로 고통감과 두려움에 빠졌으며 이유는 어떤인지 나를 이런 상태에 빠뜨리게

한 신을 잊어버리려고 했다. 나날이 더욱 더 질병을 저주했고, 기계아래로 갈 내차체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환자가 나를 응시해 보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다. 또 “당신은 너무도 젊운데!”, “무슨 병이요?”라고 묻는 말도 싫었다. 또 조사로 인한 화상과 허약감 무력증도 싫었고 갑작스럽게 아무때나 올라오는 구토증도 지겨웠다. 방사선 요법이 나의 생애와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되었고 방사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싫었다. 나는 매사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여러번 기도했으나 결국은 “Cobalt”요법이 끝나게 되어, 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신에게 감사했다.

약물요법(Chemotherapy)이 시작되기 몇주동안, 집중적인 치료단계에서 심신을 쉬게 되었다. 나의 기운은 점차로 회복되었으며 내마음도 병을 넘어서, 보다 좋은 일을 생각하도록 했다. 나는 미장원도 가고 친구집에도 가며 시장에도 가는 등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하였다. 의사들과 가족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 요청에 따라 ICU에 시간제로서 다시 일하기로 하였다.

첫날은 상당히 힘이 들었고 수많은 시선이 나를 응시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보이는지 등의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의사나 동료들은 나의 방사선 요법이나 화상, 또 하려고 하는 약물요법에 관해 친절하게 묻곤 하였다.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나 나의 가족들의 끊임없는 경계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였으며, 나는 서서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하였다.

결국 치료중에 가장 힘이 드는 약물요법(Chemotherapy)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약물요법을 받는 환자를 보아왔으나, 대부분이 독작용이 나타났고 한사람도 즐겁게 오랜동안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감을 느꼈다.

처음 병원에 갈 때는 어머니가 같이 갔었는데 외할머니도 암의 말기 상태에 있어서 어머니의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어머니에게서 더 큰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느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공포감을 갖고 내 주위를

둘러 보았다. 거기에는 한때는 건강해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물과 질병의 희생이 되어 쇠약해진 남녀가 있었고 몇몇은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겨우 앉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걷는데 부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모두가 창백했고 어떤이는 황달에도 걸렸었다. 아무도 자기 외모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였고 그들은 수척했으며 낙심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동요되었으며 내주위의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진찰실에 혼자 남겨져자 눈물도 멈췄고 식은땀이 흘렀다. 의사는 내가 아주 건강해 보이며 ICU에서 자기와 같이 일했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얘기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또 내병이 치료되고 있음을 띄웠어 했고 약물도 선택되었으며 치료과정도 다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들으면서도 죽음에 임박했다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후 나는 진찰대에 누워서 5%포도당을 혈관주사로 맞기 시작했고 곧 간호원이 몇개의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Cyclophosphamide”(Cytosan)와 “Vincristine”(Oncovin)을 정맥으로 서서히 주사 하고 주시하면서 “머리가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헛드세요?” “혀에서 어떤 맛을 느껴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오직 공포감만을 느꼈다. 끝난 후에 집에 와서 메스꺼움을 느꼈고 투사성 구토를 했으며 실음을 했다. 이 증세는 다음날 까지도 계속되었다. 나는 나자 신에게 통제적으로 불쾌 치료된 상황을 말했고 나는 치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으며 이를 후에는, 다시 간호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Cytosan”과 “Oncovin”은 연속해서 월요일에 주었고 “Procarbazine hydrochloride”(Matulane)나 파량의 “Prednisone”을 2주간 주었다. 그런후 다음 치료약을 시작하기전 2주동안은 모든 약물을 끊었다. 치료하지 않는 2주동안에 나는 기절할 정도로 어지러웠고 허약했으며 발한이 심했

고 기분이 흔들렸으며 개성도 변했다. 이러한 증세는 “Prednisone”의 부작용으로 생각되었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러한 것들이 악성세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참으려고 애썼다.

나는 간호일을 계속하려고 애썼으나 생리적으로 약해졌고 심리적으로 역시 병들었다. 나날이 나의 존재,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졌고 일할때에 나는 계속해서 부정맥을 체크하는 것을 빠트리거나 틀린 약물을 두어하는데 닥한 공포감을 가졌으며 더이상 나의 판단을 믿기가 어려웠다. 모든 사람과의 대화도 점점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나는 간호하는 일을 그만 둘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나 의사나 동료들은 나의 내적 불안감에 비해 행동은 훨씬 적당하다고 말하면서 내 상태를 고려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간호원을 계속하도록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애썼으며 간호일을 계속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질때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 항 구토제는 계속적인 메스꺼움이 가라앉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나의 행동을 둔화시켰다. 그래서 나는 어름 조각을 빨았고 어떠한 환자도 내앞에서는 토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땀을 무한정 흘렸으며 내 동료가 나를 찾지 않을때는 창가에 앉아서 바람결에 머리와 부장을 맡겼다. 나는 “Prednisone”의 특별한 부작용인 “Moon face”나 근육 쇠약감, 허탈감, 또 피부나 손톱에 색소침착 등 게다가 머릿도 빠지는 등의 부작용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다.

다음에는 점차적인 호흡곤란, 기침, 발열, 방사선으로 인한 폐염, 심근염등의 악몽이 뒤따랐으며 증상도 몇달간 지속되었다.

나는 암과 이의 치료과정에 희생된 쇠약해진 환자가 된 것 처럼 간호일은 그만두어야만 했으며 나는 산을 올라가다가 구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나의 감정은 다시 우울해지고 마음은 흔들렸다. 합병증이 이어 또 합병증이 계속되었으며 백혈구 감소증이나 약물에 대한 감소된 저항력으로 “virus”, 감염이나 “fungus”노로제의 감염이 반복 계속되었다.

약물요법은 예정대로 계속되었고 매번마다 숨

이 차는게 더 악화되었다. 증상으로 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폐렴이 병의 과정에 따라 나타났으며 내 폐나 내 몸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 혼동이 됐고 나는 특바른 선을 따라 걸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 역시 약물요법의 합병증인 “Vincristine neuropathy”라고 했다. 나는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불쾌한 감이 들었었다.

걸는 것이 불가능 하고 숨이 차는 것은 삶의 의의가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상태의 나를 위로하려고 주치의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부인도 침실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2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는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나는 같은 상태가 되리라 믿었고 그 생각은 조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좋은 간호원이 되어야 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참아야 하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노력에 진력이 났다. 암과 이의 합병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그것이 재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치료 계획에 따라 정맥주사로 약물 투여를 받았고 집에 와서 침대로 가는데도 14 계단을 오르는데 30분이 걸렸다.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은 출혈성방광염이었는데 이는 “Cytosan”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Nitrogen mustard”로 대체시켰으며 할머니가 사망하시던 날에도 나는 한가지의 치료를 받았다.

호흡이 짧아지고 걸기가 곤란한 상태로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일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수많은 진해제며 항생제 거담제를 썼고 “Prednisone”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방광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여받았다. 그러나 매일 매일 악화되는 것 같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었고, 낙심하여 눈물트 세월을 보냈으며 잘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다. 나는 주치의의를 만나 입원할 것을 의논했으나 그는 부모가 해주는 것 이상으로 병원에서 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나의 우울감을 느낀 그는 기관지 이완제와 “Digoxin”을 처방해 주었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중요한 도움도 없었다.

나는 주저 앉거나 호흡곤란이 없이는 화장실에 열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으며 어느날 밤은 기절을 하여 화장실 마루바닥에서 깨어 났었다. 내 전신은 감각이 마비된 듯 했고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잡고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다. 이윽고 엠브란스가 왔었고 보조자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Hodgkin's”라고 대답했다.

응급실에서 혈관주사가 시작됐고 입원 수술이 되었다. 수많은 혈액검사를 했고 소변검사, 혈액배양검사, 그리고 예민도(Sensitivity) 검사도 하고 정체백노관, 체온, 기침, 호흡곤란의 증가 산소, 동맥가스, “X-ray”, 폐 “Scans” 항생제 혈관주사, “Digoxin”(강심제), “Heparin”(항응고제) 수혈, “Steroid”양의 증가 또 많은 의사가 왔었다. 내가 현재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 의사가 간단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만 말했다. 나중에 나는 많은 진단을 들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양쪽 폐에 기관지 폐렴이 생겼고 Gram 음성균의 폐혈증, 뇨로제통의 “Proteus” 감염, 폐전색증이 나타났다. 또 골수 억압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과 빈혈이 나타났으며 초기 산소압력 43 (initial Po<sub>2</sub> 43)으로 인한 설명할 수 없는 폐 억압증으로 약물요법은 멈추게 되고 한달간 입원하게 되었다.

여러차례 설명할 수 없는 고열이 산발적으로 올랐고 항생제와 “Steroid” 요법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약물로 인한 열이라고 했고 이를 검사하기 위해 “North Carolina”에 있는 “Duke Medical Center”인 “Durham”에 갔었다. Duke에서 검사는 반복되었고 이른상의 진단으로는 Pneumocystis Carinii라고 내려졌으나 세균학적 양성 반응은 없었다. (이는 Protozoa 감염으로 심하게 면역이 억압된 사람에게만 오는 감염이다.) 이것의 치료는 메스꺼웠고 허약하게 됐으며 3주동안 계속되었다. 폐기능 검사나 동맥가스 결과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약물요법이 성공적이 아니었으므로 폐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었다. 주치의는 이 수술이 위험하고 수술후 폐의 억압없이 살 수 있는 기회는 80% 정도라고 말했다.

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세상에 없을 것이다.

수술을 결정하는 때는 4일이 걸렸다. 나의 가족은 원치 않았지만 나는 수술을 원했다. 나는 완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3일째 되는 날 폐기능검사나 동맥가스검사가 반복되었는데 그 결과는 약간 좋아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사는 좀더 기다려 보자고 했었다. 점차적으로 나의 산소압력(Po<sub>2</sub>)은 53으로 올랐고, 폐역압증이라는 진단과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합병증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고 Duke를 떠났다.

회복의 단계인 6주후에는 집에서 세밀한 관찰을 했으며 나는 중정도의 폐기능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나 회복은 느리고 억제되어 호흡곤란 때문에 어떤 일이든 중단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친구나 가족이 메리고 다닐때만 집을 나갔고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로만 다녔다. 점차로 산소압력이 70으로 오르고 다시 80으로 올랐다.

Hodgkin's disease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약물요법을 다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는 반복되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활동적인 질병의 증거가 없어져서 모두들 놀랐으며, 나는 갈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고 한편 악몽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울었다. 나는 남은 5년후에 완치가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동안에도 그의의 임파선은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며 치료후에 남은 영향의 하나로서 오랜기간 무혈경이 올 것이라는 사실도 들었다. 그들은 내가 언젠가는 난소기능을 갖게 될 것이며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여러가지를 참작한 후에 임신하도록 충고 했었다. 의사는 나에게 3회간의 약물요법으로 내몸은 건강한 예를 임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레 나는 질병이 저주스러웠다.

절차로 나는 옛친구를 방문하고 여행하며 처음으로 삶을 시작했다. 1973년 10월에 나는 일주에 3일씩 하루에 4시간 일을 했고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심하게 아픈 환자나 가족들을 간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에 나는 대상포진(Herpeszoster)이 생겼고 이전 "Hodgkin's disease"환자의 50%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일하는 동안 등화 독 그리고 가슴에서 조그만 물집을 발견했으며 이상한 피로감과 미열이 있는지 몇주후에 등과 목에

등통이 시작되었다. Bone Scan과 수많은 혈액검사는 정상이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아마 아픈것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등통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했다. 대상포진은 다발성 신경근이 침범된 것 때문이라고 의사는 말했으며 "Medrol"과 "Aristocort"크림 그리고 Demerol로 치료를 시작했다. 며칠간 집에서 쉬후 "Demerol"약물로서는 더이상 등통이 완화되지 않아서 의사에게 "아마 더 많은 인내심이 나에게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더니 그는 나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Demerol"과 Phenergan을 근육주사해준 후에 더 살피본 후 언제부터 복부에서 배부에 물집이 생겼는지를 물었다. 나는 "어마 몰랐어요"라고 대답했다. 집에서 쉬는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 신체 다른 곳에 나타나는 물질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전신대상포진으로 입원했었다.

나는 급성백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대사물인 "Cytarabine"이나 "Cytosine Arabinoside"(Cytosar)로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DNA 억제제인 Cytosar가 아마 전신에 퍼지는 대상포진을 억제할 듯 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의 합병증이 또 다른 병을 가져 왔는데 나는 요로감염으로 열이 화씨 104° 이상으로 오르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등통도 강화되었다. 나는 혈관으로 "Disodium Carbenicillin(Geopen)"을 며칠간 맞았으며 입원은 한달간 계속되었다. 주치의는 대상포진이 20%로서 2~3° 화상과 같은 정도로 내몸에 퍼졌다고 말했다.

"Pestneuritic pain"과 가려움증이 처음 두달간에 왔었고 그후로도 산발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때마다 나는 등통을 잘 견디었고, 아니면 앉아서 들었으며 등통이 덜해질때 까지 목을 잡고 울었다.

내기분에 흉터는 현저하게 나타난 듯했으나 의사는 깨끗이 나았으며 흉터가 전혀 안보인다고 했다. 나는 다시 ICU에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완전히 일할 수 있으리라고 기뻐한다.

나는 내생의 일부를 적으려고 노력했으며 "호지킨"씨병 이상의 것이 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래에 질병없이 생활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며 정말 오랜기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생각해 왔다. 나는 질병을 앓았고 또 합병증을 앓았었기에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간호원이 되리라고 믿는다.